

나고야AG 수영에서 첫 ‘금’ 나왔다

김영범, 남자 자유형 50m 21초66 기록으로 금메달
지유찬 3위… 남녀 배영 50m서도 동반 동메달 획득
사격·우슈·종합격투기에서도 메달 낭보 이어져
여자 축구 남북대결 1-1 무승부… 25일 우즈벡과 8강

김영범(강원특별자치도청)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영범은 21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66의 대회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로써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대회 지유찬(대구광역시청)에 이어 2회 연속 이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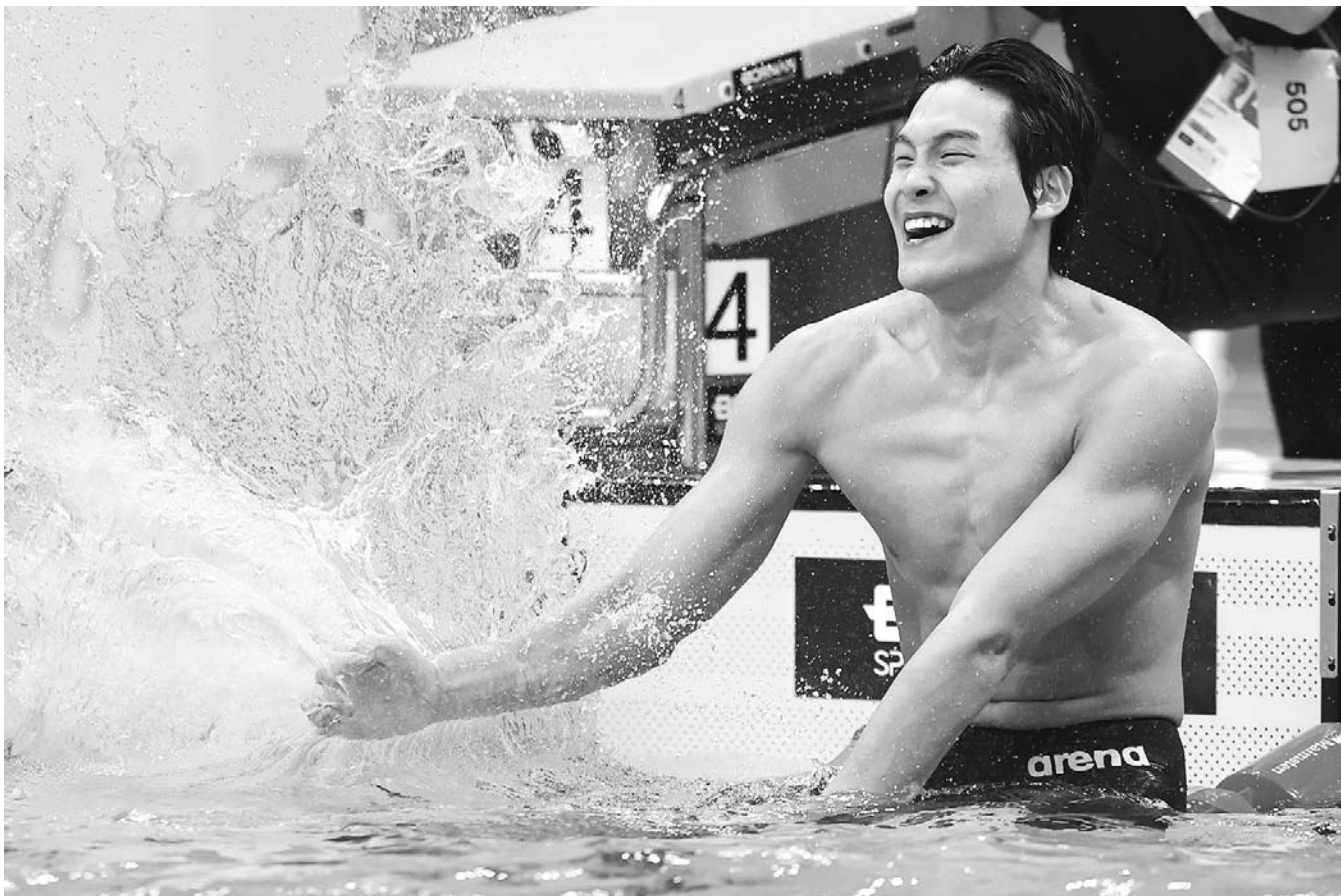
전날 자유형 1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범은 하루 만에 금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레이스 선두 주자로 우뚝 섰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김영범이 21초71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전체 1위로 결승에 오르고, 지난 대회 챔피언 지유찬은 22초23으로 예선 전체 3위를 했다.

김영범의 21초71은 2022 항저우 대회 금메달 당시 지유찬이 세웠던 종전 대회 기록인 21초72를 0.01초 앞당긴 것이었다.

김영범은 결승에서 자신의 예선 기록을 다시 0.05초 줄이는 폭발적인 레이스로 대회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웠다.

결승에서도 이들 두 선수는 치열하게 맞섰다. 4레인에서 출발한 김



21일 도쿄 아쿠아티스 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50m 개인 자유형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영범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남녀 동반 동메달을 따냈다. 윤지환은 남자 배영 50m 결승에서 24초54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고 한국 여자 배영의 유망주 김승원(경기체고)이 27초72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로 도착했다. 이날 사격에서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박하준(26·KT), 신민기(27·창원특례시청), 권협준(25·서산시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본선 겸 단체전에서 1884.2점을 합작했다. 한국은 중국(1899.0점), 인도(1890.1점)에 이어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안현기(충북개발공사)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우슈에 대회 첫 메달을 안겼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종합격투기(MMA)에서도 동메달이 나왔다. 이보미는 나고야 이나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MMA 여자 모던 54kg급 준결승에서 디아나 포고시안(바레인)에게 0-3으로 패했지만 값진 동메달을 한국선수단에 안겼다. 여자 축구는 21일 벌어진 ‘남북대결’에서 북한과 1-1로 비기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한국은 G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25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제20회 제주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 남주고 배구 우승… 올해 도대회 ‘5관왕’

남주고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부가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서 고등부 정상에 오르며 올해 5관왕을 달성했다.

남주고 배구부는 지난 19~20일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고등부 경기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 사진

이번 대회에는 도내 남자 고등부 14개 학교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남주고는 16강에서 한림항공우주고를 2-0으로 꺾은 데 이어 8강에서 제주사대부고를 2-0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대기고를 2-0으로 물리쳤으며, 결승에서는 제주

중앙고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남주고 배구부는 올해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제15회 제주시장배, 2026 KVA V3 디비전리그에 이어 교육감배까지 차례로 우승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출전한 주요 대회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르며 제주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배구 강팀으로서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주고 배구부는 이번 우승으로 제주 대표 자격을 얻어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출전한다. 위영석기자

‘회장 공식 장기화’ 제주도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전임 최철영 회장의 자격정지 징계로 자동 퇴임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8일 도체육회관 2층에서 민선 2기 제21회 이사회를 열고 최철영 제주자치도 태권도협회회장의 퇴임에 따른 제주자치도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오선홍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내로 태권도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관리위원회는 회장 공백으로 빚어졌던 각종 대회 개최와 협회 운

영 등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도체육회와 관리위원회는 또 정관에 따라 빠른 시일내 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태권도협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최철영 전 회장이 맡고 있던 감사를 교체했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계획안, 참가 선수단 격려구 하급 계획안,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제의응수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결했다.

신진성 도체육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육인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모레노호’ 첫 소집… A매치 4연전 준비 24일 에콰도르·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한국 축구 반동의 중책을 짊어진 ‘모레노호’ 축구대표팀이 첫 소집 훈련에 들어갔다.

스페인 출신의 임시 사령탑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의 태극전사들은 21일 오후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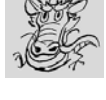
천안 코리아풋볼파크로 모였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처참한 실패를 맞본 대표팀이 울겨울 열리는 2027 아시안컵과 4년 뒤 월드컵을 준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

이번 A매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4경기가 치러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 피로를 줄이고 소속 구단과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연간 5회로 쪼개져 있던 A매치 기간을 4회로 줄이면서 이번 9~10월엔 다른 때의 두 배인 4차례 A매치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모레노호는 오는 24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고, 28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한다. 또 10월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와 상대하고, 6일에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난다. 모레노 감독은 일단 이번 4경기에 더해 11월 열리는 2경기까지 총 6경기를 지휘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비치발리볼 예선 하키 남자 A조 예선 인도네시아·대한민국 농구3X3 예선 3차전	6:05 TV 유치원(재)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8:50 인강극장 스페셜 9:30 여기는 나고야 수영 예선 사격 결승 배드민턴 8강 여자 단체전 농구3X3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사격/탁구 11:1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사격/탁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나고야 갈고야 스페셜 9:00 나고야 2026 배드민턴 / 수영 / 탁구 / 사격	8:20 지구 영웅 반격맨 9:20 자이언트 펭TV 9:40 서정호의 이웃집 백만장자 12:10 최후의 인류 13:25 지식채널e 14:10 EBS 평생학교 스페셜 16:20 당동당 당동당 18:20 고향만국 19:45 극한직업
16:0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MMA 남자 결승 배구 여자 동메달 결정전 핸드볼 남자 B조 대한민국·이란	14:00 여기는 나고야 배드민턴 8강 남자 단체전 탁구 64강 혼합 복식 농구 여자 C조 예선 대한민국·대만 17:00 여기는 나고야 수영 결승	13:00 MBC 뉴스 13:1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탁구/배드민턴/ 농구 여 C조 예선 대한민국·대만 17:0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남D조 예선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아구 예선 대한민국·홍콩/ 수영	12:30 나고야 2026 배드민턴 / 탁구 / 체조 15:30 나고야 2026 수영 / 배드민턴 / 농구 / 배구 / 핸드볼 / 펜싱	KCTV 9:00 KCTV 9시뉴스 9:30 킥볼어요 10:00 삼촌 땀심함서예 12:30 KCTV 스페셜 13:30 수중올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00 내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리얼귀농스토리 나는 농부다 17:20 황금나침반 18:00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19:30 소리원정대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19:1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결승 배구 여자 결승전 탁구 남·여 단체 8강 아구 조별리그 2차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23:50 KBS 뉴스	18:50 여기는 나고야 축구 남자 D조 2차전 대한민국·사우디 아구 2차전 대한민국·홍콩 22:00 구로미 다시 그린 달빛(재) 23:20 토요일 미니시리즈 너 알고 다른 연애(재)	21:00 MBC 뉴스데스크 22:0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특집 SBS 8 뉴스 21:00 나고야 2026 특집 JIBS 8 뉴스 22:00 통상이론2 나는 내 운명 23:40 나고야 2026 특집 나이트라인	18:20 나고야 2026 축구 / 아구 / 펜싱 / 탁구 / 배드민턴 21:00 나고야 2026 21:40 JIBS 8 뉴스 22:00 통상이론2 나는 내 운명 23:40 나고야 2026 특집 나이트라인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귀의 어면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2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주변 협조로 좋은 일이 온다. 음식은 주의. 48년 주유업, 서점, 출판인쇄업은 활기를 얻는다. 60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일은 이익의 증가. 72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이익이 생기거나 훗날 결과가 있다. 84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 교제에 신중.		42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집안문제 불화가 오니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한다. 54년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음주 시 운전 금지. 66년 상사의 추천 도움이 있거나 사업자는 금전운이 좋아진다. 78년 봉사활동이나 여행할 일이 다사다난. 90년 어떤 직업이라도 있다면 기운이 솟는다.
	37년 대세를 따르면 편하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출현해 경쟁한다. 49년 자기 운신의 폭을 넓히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61년 작은 일이라도 자심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73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85년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으니 사이버활동도 권장.		43년 작은 이익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55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67년 목격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해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9년 의류업과 이미지관리업은 인기가 증가한다. 91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지갑에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38년 연락을 취하면 상대와 만나게 된다. 50년 휴식이 필요하고 건강도 체크해 볼적이다. 62년 문상 또는 방문할 일이 생기니 정장을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게 좋다. 74년 대인관계에 신뢰가 필요하니 약속이 생기면 거절하지 말고 이행하라. 86년 애정관계에 금이 가거나 마찰이 오니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44년 매매 문서 또는 서류와 관련된 일은 유리. 금전적 지출이 발생. 56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행동을 조심하라. 68년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격을 갖고 하는 업을 찾거나 시작하라. 80년 결혼 또는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중매가 성사된다. 92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름이 요구.
	39년 함께 일을 해야 하거나 도와줄 일이 생긴다. 51년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63년 자녀나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근심이 생긴다. 75년 미용, 약제사리에 관심이 많고 구매충족이 강하게 나타난다. 87년 활동이 분주하고 갈 곳이 많다. 서쪽이 길.		45년 수산업·청과물 분야 이익이 호전된다. 57년 내 몸이 분주하고 손이 바빠진다.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69년 미혼자에게는 이성이 필요하고 기혼자는 자녀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81년 직업을 가질수 있으며 시험 등에 좋은 소식이 있다. 93년 이사, 문서상 변동운이 오거나 자녀의 일로 걱정한다.
	40년 관절에 이상이 오거나 신경통이 생긴다. 52년 매매 문서 또는 제물에 이익이 오고 동북간이 행운방위. 64년 내 뜻이 맞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 자격증 취득도 좋다. 76년 양보나 절이 우선 시 되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88년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빈축을 산다. 미루지 않는 습관 필요.		46년 슬픔과 기쁨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58년 엔지니어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은 분주하다. 70년 문서 매매 변동근 또는 직업인은 활동이 분주해진다. 82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하나 찾아 뵙는것이 마음 편하다. 94년 형제자매의 혼사나 상견례가 이뤄지거나 모임 참여 할 일이 있다.
	41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53년 남모르게 선행할 일이 생기거나 도움줄 일이 생긴다. 65년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고 있다. 77년 연변 화술로서 상대를 편안케 해주니 인기가 최고로 빛난다. 89년 나의 능력을 주위에서 인정하도록 고민하라.		47년 귀가나 늦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음주는 자제할 것. 59년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보단 성실한 책임완수가 중요. 71년 집안식구나 친지들의 문제소식을 접하며 금전소실이 있다. 83년 일이 풀리지 않던 사람은 일이 호전되고 이성 또는 친구교제가 발생. 95년 변화를 주려고 하며 청명, 등업을 하려 한다.